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 ] 수험 번호 [ ] 제 [ ] 선택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 1. 갑: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2. 갑: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3. 을: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4. 을: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5. 갑, 을: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재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1.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2.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3.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4.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5.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국익을 위한 국가 간의 불가피한 권력 투쟁으로부터 발생한다.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이다.
을: 전쟁은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지만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이 심각하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해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도덕적으로 필요하다.

- 1. 갑: 전쟁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이다.
2. 갑: 국가 간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칙은 합의될 수 없다.
3. 을: 전쟁 결과의 정의를 위해 전쟁 수행의 정의는 유보해야 한다.
4. 을: 인권 침해국에 대한 군사 개입은 주권 침해로 예외 없이 부당하다.
5. 갑, 을: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해야만 전쟁 종식은 가능하다.

4.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악(樂)은 '같음'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나)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기>
ㄱ. (가):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ㄴ. (가):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ㄷ. (나):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ㄹ. (가), (나):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5.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례>
고등학생 A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가 TV에서 '난민 돕기 운동' 광고를 보고 모은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1. 정언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2.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하세요.
3.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세요.
4.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배려심을 발휘하여 행동하세요.
5.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을: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돼야 합니다.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갑: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을: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함의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②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 ③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 ④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 ⑤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7.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기업은 고용인(雇傭人)\*과 고용주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계약 관계로 유지된다. 기업의 결속력도 서로의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에 의해 생길 뿐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의 행위를 알게 된 고용인이 이를 사회에 알리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은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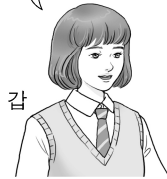
\* 고용인(雇傭人):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 ①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 협력과 결속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 ④ 조직에 충성하기를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서 떠나야 한다.
- ⑤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8.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기존 사회와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① 갑: 주류 문화 우위를 전제로 이민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② 갑: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을: 사회 조화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 문화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
- ④ 을: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 ⑤ 갑, 을: 사회적 연대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 공존과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9.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옛 성인(聖人)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수취하니,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 ①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랏일에 충실해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 ③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 ④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으로써 보답해야 한다.
- ⑤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 낸다.

- ① 갑: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갑: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을: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론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1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더 절실히 요구되는 소비는 생산, 유통, 구매 그리고 사용 이후의 처리와 재생에 이르기까지 사회, 환경, 미래 세대 등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소비할 때 우리는 ㉠

<보 기>

ㄱ. 생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ㄴ.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ㄷ. 지속 가능한 소비보다는 현세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ㄹ.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 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견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 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②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③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⑤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소셜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 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을: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광장으로,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보 기>

ㄱ.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ㄴ. 갑: 정보 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ㄷ. 을: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ㄹ. 갑, 을: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범죄자가 노역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p> <p>을: 인간은 내적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네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네 자신에게 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형벌에서의 정언명령이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보 기>

ㄱ. A: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ㄴ. B: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ㄷ. B: 과도한 형벌은 효용 원리와 사회 계약 모두에 위배되는가?  
 ㄹ. C: 인도적 동정심에서 사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ㄴ. 갑: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ㄷ. 을: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ㄹ. 갑, 을: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과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그들 각자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생명체라면 존중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p> <p>병: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p>
(나)	

- ① A: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을 간과한다.
- ③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④ 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 아님을 간과한다.
- ⑤ C, E: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17.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통일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통일은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성취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급진적 방식의 통일보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예술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① 점진적 평화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 ④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 ⑤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을: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 ① 갑: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 ② 갑: 과학의 목적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이다.
- ③ 을: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④ 을: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 ⑤ 갑, 을: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20.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게

오늘은 너에게 참된 우정에 대해 말해 주고 싶구나. 너도 잘 알겠지만, 인생길에는 뜻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가 꼭 필요하단다. 누구나 친구를 사귀지만, 모두가 참된 우정을 나누는 것은 아니란다. 우정은 사람됨에 따라 격이 달라지는데, 옛 사람들은 이를 '군자(君子)의 우정'과 '소인(小人)의 우정'으로 구분했단다. 소인이란 이익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이익이 될 때 잠시 서로 벗이 되는데, 이는 사실 속임수일 뿐이어서 이로움을 보면 앞을 다투고, 이로움이 사라지면 소원해지며, 심지어 서로 해치기도 한단다. 군자란 도의(道義)를 지키며 명예와 절개를 아끼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사귀면서 도(道)가 같아져 서로 도움이 되고, 마음이 같아져 함께 돌봐 주어 오래도록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단다.

- ① 참된 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 수양이 필요하다.
- ② 소인의 우정은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 ③ 가까워질수록 서로 뜻을 존중하고 권면을 삼가야 한다.
- ④ 군자의 우정은 올바른 신념을 공유하여 호혜 관계를 형성한다.
- ⑤ 이익에 기초한 우정은 잠시지만 도의에 기초한 우정은 지속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